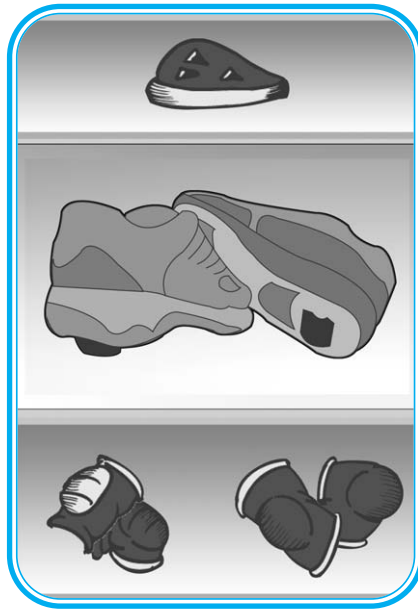


힐리스(바퀴 달린 운동화) 안전수칙

힐리스는 바퀴 달린 운동화로 학생들 사이에서 급속히 유행하고 있는 운동기구이다. 이는 무게 중심을 뒤쪽으로 옮겨 타는 것으로 몸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례가 많으며, 특히 머리를 다치는 학생들이 많다. 그러나 인라인 스케이트와 달리 힐리스를 타는 사람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혀 있어, 힐리스의 위험성과 이용시 준수사항을 알려줘야 할 것이다.



■ 이용시 주의사항

- 힐리스를 이용할 때에는 부상방지를 위해 인라인·롤러스케이트를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헬멧, 팔·무릎·팔꿈치 보호대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.
- 비오는 날은 물론 바닥에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주행을 삼가한다.
- 바퀴·힐축·베어링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전문 매장을 통해 점검을 받도록 한다.
- 학교·도서관·박물관 등 실내 공공장소 등 사람이 많은 장소와 차도에서는 가급적 타지 않도록 한다.
- 운동할 때만 신고 운동이 끝나면 다른 신발로 갈아신도록 한다. 